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겨울방학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상급 학교로 진학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걱정되기는 부모도 마찬가지다. 방학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새 학교에서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선행 학습은 어느 정도를 시켜야 하고,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좋은 것인지 막막할 따름이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 김스름 김 신희 기희실장은 "예비 중학생들엔 방학 동안 무리한 선행학습보다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일이 더 좋고, 고등학교 진학자들은 뚜렷한 목표 설정과 계획적인 학습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 실장의 도움으로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과목 별 대비 요령을 알아본다.

중·고 입학 앞둔 내 아이 준비 어떻게

책·신문읽기 매일 하고.. 영어 어휘 미리 익혀라

예비 중학생

▲국어 국어 성적의 향상에는 독서가 필수적이다. 다만 무슨 책을 읽어야 국어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다면, 중학교 교과서를 구해 읽어보는 게 좋다.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은 물론, 설명문이나 논설문 등도 함께 읽어 미리 내용을 숙지하면 자신감이 생겨 내신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영어 중학교 과정의 영어 교육은 '문법과 듣기'로 요약된다. 주로 간단한 회화 위주로 배웠던 초등학교 때와 달리 문법적으로 왜 이런 문장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학생들은 방학 동안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불안하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선행학습보다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예비 고등학생

▲국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국어 선행 학습은 필수적이다. 중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인 '고등국어(상)'를 미리 학습해두는 것이 좋다. 국어의 경우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EBS 교육강좌 등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영어 고등학교 영어는 어휘, 독해, 문법, 듣기·말하기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학생들이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어휘량이다. 중학교 과정의 어휘량을 모두 섭렵했다 해도 고등학교 영어

김스름 김신희 실장의 겨울방학 학습 조언

예비 중학생

- 장래 희망(목표)을 분명히 세우고 출발하라
공부는 '습관'과 '노력'이다
무리한 선행 학습은 금물이다
논술은 꾸준한 독서와 신문 읽기로 준비하라

예비 고등학생

- 자녀의 교육관계에 관심을 가져라
목표 설정과 계획적인 학습을 실행하라
'영어'는 시험 과목이기 전에 미래의 재산이다
사교육은 관리가 철저한 곳을 선택하라

무리한 선행 학습은 되레 역효과
주요 과목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중학교 때 적정 수준의 영어 문법을 잘 익혀야 고등학교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다갈 수 있다. 중학생이 수준의 문법책을 보는 것이 좋다.

듣기의 경우 말하기와 함께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듣기와 말하기의 핵심은 반복 학습인 만큼 하루 30분이라도 매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원어민의 목소리를 따라 정확하게 흉내를 낸다거나 듣기 평가용 테이프를 규칙적으로 듣는 것이 도움된다.

▲수학 가장 많은 예비 중학생들이 선행 학습을 하는 과목이 수학이다. 중학교 1학년 수학 과정을 방학 동안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은 자칫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중학교 과정의 수학이 초등학교 과정보다 물론 어렵지만 어차피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중학교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초등학교 수학과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방학을 이용해 확실하게 되짚고 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학습 목표 '하루 몇 시간' 정하고
오답 노트 만들어 매일 정리해야

에서 그 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교 어휘집을 암기하는 일이 방학 동안 해야 할 공부다.

독해의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지문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 독해는 단순히 영어 실력 뿐 아니라 글에 대한 이해력이 깔려 있어야 더 쉬워진다. 하루에 한 개의 지문을 택해 독해하고, 정독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수학 고등학교 1학년이면 희망대학과 희망과목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문·이과 선택 등 계획적인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수학 공부의 흐름과 계획은 계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비 중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학은 어설플 선형학습보다 완벽한 복습이 더 효과적이다. 수학은 기초가 탄탄해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목이다. 학습 목표는 '문제 몇 권' '시' 보다는 '매일 몇 시간' 식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습관의 중요성 때문이다. 또 수학에서는 오답노트가 필수적이어서,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M-Box 24시간 영화관

엔터시네마 7개 상영작

엔터시네마 7개 상영작

콜롬버스시네마 10개 상영작

콜롬버스시네마 10개 상영작

콜롬버스시네마 10개 상영작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금보부동산컨설팅 021-8949-8949

인애공인중개사 011-642-0391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062-973-9174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법원경매 222-8446